

‘K컬처’에 담긴 지역성·세계화 조명

‘2021아시아문화포럼’ 13일 열려

김보람 예술감독·홍석경 교수 대담

한류 우수성·대학생 콘텐츠 사례 발표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등 지구촌에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시대 상황에 맞는 메시지, 연출력, 소재인 게임 규칙의 단순함 때문



이라는 공통된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콘텐츠가 지닌 창의성, 서사성, 융합성이 세계인을 매료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K컬처에 담긴 지역성과 세계화 그리고 향후 가능성은 무엇일까.

지역과 지역을 매개하고 청년들에게 새 연대감을 주는 ‘K컬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13일 열리는 2021아시아문화포럼이 그것. 그동안 아시아문화 정체성을 탐색하고 문화적 연대와 사회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던 아시아문화포럼이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K컬처를 주제로 찾아온다.

행사는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채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개막일인 13일에는 6인조 그룹 비투비(BTOB) 멤버가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김보람 감독



홍석경 교수

특히 포럼에는 완도 출신 김보람 엠비규어스튜디오 예술감독과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대담이 공개되며, 국내 대표 한류 문화학과 평론가 등이 K컬처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K컬처, 전복과 재배치’를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논의도 펼쳐진다.

먼저 백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K컬처(POP)는 어떤 문턱을 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세계 대중문화 지형에 새로운 변화와 균열을 일으키는 한류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현준 성공회대 교수는 ‘연구자 S의 4만세기 동안의 Kk 오디세이’라는 제목으로 ‘K컬처’를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트랜스 로컬’의 수용미학을 제안한다.

세션1 ‘한류문화의 두 얼굴’에서는 한류문화의 이중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국제 미디어 유통, 한류 그리고 혼종성’ (심두보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K컬처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이종임 경희대학교 교수), ‘K컬처 혹은 한국적 소리의 수행적 모순’ (최유준 전남대학교 교수)이 발표된다.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광주·취안저우·요코하마 각각의 청년 문화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다. 세션2 ‘탈경계 시대, 도시와 청년 문화’에서는 아시아 청년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췄다. ‘취안저우 고성 문화청년’ 천잉엔(푸젠성 취안저우 해외교통사박물관 부관장), ‘요코하마·가나자와 시(Sea)사이드 타운의 아트 프로젝트 효과와 향후 가능성’ (다테이시 사오리 요코하마 AIR ACT 실행위원장 P.M.), ‘청년이 바꾸는 마을, 청년이 만드는 지역문화’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가 소개된다.

세션3은 우리지역과 해외에서 K컬처를 창작·연구·향유하는 ‘청년아시아문화연구단’이 참여한다.

광주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물로켓’은 ‘지역활동영화인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현실과 극복 방안을 제안한다.

조선대학교에서 K컬처를 공부하는 재학생으로 구성된 ‘ME&TA’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K-컬처 사례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과 예술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중동의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한류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개관 19주년 ‘국악 한마당’

7일 가야금·판소리 등 경연

광주를 대표하는 국악의 산실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개관 19주년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연면적 2000㎡(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국악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악전수실과 국악기 박물관 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국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관 19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별기획 국악

한마당’이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3부에 걸쳐 펼쳐진다. 제1부에서는 가야금·대금·해금·장구·고법·민요·판소리·가야금병창·정가 등 9개반 국악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경연이 열린다. 경연은 수강생들의 연주를 영상으로 심사하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제2부는 공로패 및 모범상패 등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꾸며지며, 제3부에서는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의 가야금연주와 조통달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관객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350-455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오는 7일 개관 19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국악한마당 공연을 갖는다. 사진은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악상설공연 모습.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에 이경아씨

‘심청가’ 중 ‘곽씨부인 유언’ 열창

상금 4000만원·순금 트로피

‘제29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이경아(38·사진)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씨는 ‘심청가’ 중 ‘곽씨부인 유언’ 대목으로 경연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상금 4000만원원과 순금 40돈 트로피가 수여됐다.

어머니 조영자 명창과 이모 조소녀 명창을 둔 이 씨는 어렸을 적부터 국악을 접했다.

그는 전주예고를 졸업한 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으며, 지난해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은 ‘수궁가’ 중 ‘용왕탄식’하는 대목을 부른 김기진(경기)이, 가야금 병창 최우수상은 ‘흥보가’ 중 ‘제비노정가’를 선보인 이래경(전남)이 받았다.



일부 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열린 임방울국악제에는 학생부, 일반부, 판소리 명창부 등 3개 부문에 359개 팀이 참가했으며, 총 72명에게 총 1억779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또 농악부 대상 농악회, 시조부 대상 박향임(경기), 무용부 대상 류지운(서울), 기악부 최우수상 박경빈(서울), 퓨전국악부 최우수상 랑(서울) 등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열린 임방울국악제에는 학생부, 일반부, 판소리 명창부 등 3개 부문에 359개 팀이 참가했으며, 총 72명에게 총 1억779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공룡발자국 화석’ 디지털 교육

목포자연사박물관, 8일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은 문화재청과 협업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상자 프로그램’, ‘문화유산 실감체험관’으로 구성됐다.

먼저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상자 프로그램’은 ‘남해안 공룡발자국 화석’을 모티브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방문형 교육과 자연사박물관 전시관 내 상시교육으로 진행된다.

방문형 교육은 전남도 소재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현장에 직접 전문강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건곤교육센터(061-278-9200)로 신청하면 된다. 상시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시관을 방문해 별도 신청없이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비던스’ 멤버 테너 존 노 광주 무대 오른다

17일 광주문화예회관

새 앨범 수록곡 선보여

JTBC ‘팬텀싱어 3’에서 준우승한 ‘라비던스’의 멤버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너 존 노(John Noh·사진)가 광주를 찾는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GAC포시즌·박수를 보내라 독주회’ 네 번째 무대인 ‘테너 존 노 리사이클’이 오는 17일 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오페라 가수로도 활동해온 존 노는 카네기홀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공연장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업과 연주를 선보여왔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인 워너클래식 레이블에서 최근 발매한 그의 첫 앨범 ‘The Classic Album-NSQG’을 기념하기 위한 시간으로 피아니스트 문재원의 반주로 새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앨범명인 ‘NSQG’는 Noble Simplicity & Quiet Grandeur (고귀하며 간단하고, 고요하며 웅장한)라는 그의 음악적 철학을 담고 있다. 그는



이날 헨델의 오페라리오, 모차르트와 도니체티 오페라 아리아, 토스티와 슈트라우스의 가곡 등 바로크 시대의 음악부터 현대 가곡까지 아우르는 ‘음악적 연대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다채롭고 흥미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문재원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계명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티켓은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이며, 문예회관 유료회원은 7일 오전 10시, 일반회원은 8일 오전 10시에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